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13화)

무고로 자신이 생포한 포로들 속에 투옥된 일곱번째 천사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 6) 총살당하다
- 7) 도구생활
- 8)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추대되다
가. 인민군 포로를 못 죽이게 함
- 나. 인민군 특공대 200명을 생포함
- 9) 신양리 형무소에 재수감되다
- 10) 인고의 나날들
- 11)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
- 12) 반공포로를 석방하라
- 13) 석방 후 그리운 고향으로

8)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추대되다 나. 인민군 특공대 200명을 생포함

한번은 밤12시에 문밖에서 “대장님, 대장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치안대장으로서 항상 군화를 신은 채 잠을 잤었는데, 그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권총을 빼어들고 “누구나!”,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치안대원이라고 밝힌 청년이 말하기를, “다름아니라 저 고개 넘어 독립가옥 두 채에 인민군 군관단으로 조직된 특공대 200명이 독립가옥 한 채에 100명씩 나뉘어 지금 밥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하는 말이, 오늘 밤중으로 우리 치안대를 습격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숨어 있던 집주인의 아들이 물레 담장을 넘어 나에게 와서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즉각 치안대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리로 모이게 하시오. 시간을 끌지 말고 몇 명이라도 상관없으니 연락이 되는 대원들만이라도 데리고 오시오. 그리고 도로변 곳곳에 전화선이 너무러져 있으니 그 전화선을 서너 다발 쟁겨 오시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치안대원을 긴급히 소집하였으나 대부분이 자기 집으로 잠자리 갔기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모인 사람은 단지 다섯 명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함으로 할 수 없이 5명의 대원을 데리고 전화선 꾸러

미를 짊어지고 가면서 임무를 부여했는데, “너는 1소대장, 너는 2소대장”하며 3, 4, 5소대장을 각각 임명했고 도착하자마자 공포탄을 쏘다가 내가 신호탄을 쏘며 “사격중지!” 하면 사격을 멈추고 “3소대장 한 댓 명만 데리고 와!” 하면 다 오는 거다.” 하는 작전 계획을 지시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군에서는 4소대장은 없고 화기소대라고 부르며 5소대라는 것도 편제상 없는데, 그 당시 나이도 어리고 군 경험이 없었던 일곱째 천사는 그런 우(愚)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 기와집 두 채가 나란히 있는데, 밖과 안이 보이지 않도록 좁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옥 주위를 뺨 둘러서서 공포탄을 일제히 쏘아대니 조용한 밤하늘이 뒤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밖은 보이지 않는데다가 깔깔한 한밤중에 사방에서 갑자기 퐁 퐁들이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므로 한참 식사하던 인민군 특공대 200명 모두가 정신적으로 제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문 쪽에 있던 일곱째 천사가 노란 신호탄을 쏘며 “사격중지!” 하고 큰소리로 명령하자, 갑자기 사격이 중지되고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1개 중대는 인민군 군관단으로 구성된 특공대 200명을 완전 포위하였다. 모두 손들고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나 만약에 대항한다면 수류탄 세례를 퍼부어 전멸시킬 것이다.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 대답하라. 10초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끝장인 줄 알아라.” 하고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소리치자, 잠시 후 안에서 “항복하겠으니 쏘지 마쇼.” 하는 중년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손을 든 인민군들이 대문 밖으로 우르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일곱째 천사는 옷 속에 무기를 감추고 나오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에, 공포를 두 발 쏘며 “도로 들어가!”

해놓고 “전부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나와! 만약 나오라는 명령이 없는 데도 나오면 사살하겠다! 명령이 떨어지면 한 사람씩 나와!” 그리고 치안대원을 향하여 “3소대장! 한 댓 명만 데리고 와!” 하고 큰소리로 명령하자 5명이 모두 대문 앞으로 집결하였습니다.

그러하여 한 명씩 인민군이 나오는 대로 전화선으로 두 손을 머리 뒤로 묶어서 200명 전원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들 중에는 장성급도 몇 명 있고, 중국 팔로군 출신도 있었는데 대부분 군경력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 최고 높은 왕병 두 개짜리 되는 사람은 일곱째 천사가 제지할 세도 없이 치안대원이 총을 쏘아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별 하나짜리 차례가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총을 든 치안대원 앞을 가라앉으며 죽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여 나머지 포로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족끼리 서로 죽이지 말라고 즉석연설

일곱째 천사는 포로들을 학교 교실 에다 집결시켜 놓고, “나는 서울에 온 대학생으로서 군생활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지역 치안책임자다. 우리 여섯 명이 너희들 200명을 잡았는데, 이래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고 하니 너희들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눈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핏줄을 이어 받은 단군 할아버지 자손으로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짓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우리 민족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몇몇 위정자들이 시킨다 하여 동족을 살상한다는 것은 사람의 노릇이 아니다. 우리민족이 일본놈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여 36년간이란 기나긴 세월 에 우리말도 못하고 재산도 뺏기고 모 든 것을 유린당해 왔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해방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동족끼리 피를 흘려야 하느냐? 이는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의 발상인

것이다. 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수많은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수백 만 명이 죽어가고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그런 폭군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리라도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자.”고 즉석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도 공정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아무리 공산주의에 물이 들은 자라도 양심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처 후회하지 못한 인민군들을 잡아 계속 형무소로 보내고 군내 구석구석을 뒤지며 철저히 멸공작업을 하는 까닭에,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서 200명의 인민군 군관단으로 조직된 특공대가 들었던 집에서도 그 집주인 아들이 다락을 통해 뒷담을 넣어 신고를 해 주어 큰 전공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치안대원 6명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된 군경력이 많은 팔로군 출신의 인민군 장교들은 땅을 치며 한탄하면서도 군인도 아닌 민간인 6명의 용맹성에 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치안대원 30여명을 지휘하여 매일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인민군을 생포하고 약질 지방 빨갱이 들을 모두 생포하니 합한 숫자가 5천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곱째 천사는 포로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모면하는 그러한 중대한 일도 하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스무 살 나이에 대동군 치안대장이 되어 인민군을 생포하는 일을 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이긴자로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대동군 치안대장이라는 직책을 준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마귀를 때려잡는 훈련과정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이긴자가 되었을 때, 창세 이래 6천 년간 사망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마귀는 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9) 신양리 형무소에 재수감되다

일곱째 천사가 대동군 치안대장직을 수행하면서 약 5천 명의 공산당을 생포하는 등 평양지역 공산당 소탕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는 공산주의에 물든 포로들 역시 우리의 한 피요, 한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한 명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안대원 가운데는 자기 가족이 빨갱이들에게 몰살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이 치안대장이라는 자 때문에 복수를 못하게 되니 그들 중 몇몇은 일곱째 천사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양심을 품은 두어 명이 결탁하여 평양 시내로 달려가서 미 헌병대에 고발하기를, “우리 치안대장이 공산주의자이니가 이 공산주의자를 풀어다 잡아넣든지 죽여서 없애든지 하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일곱째 천사는 미 헌병에게 총을 맞아 죽을 뻔했지만, 일곱째 천사는 치안대장이기에 소제(蘇制) 권총이 두 자루가 있어 양쪽 허리에 실탄이 장전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헌병이 지프차를 타고 와서 갑자기 권총을 들이대며 영어로 일곱째 천사를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헌병이 일곱째 천사에게 총을 겨눌 때, 일곱째 천사도 하는 수 없이 살려나간 재빨리 쌍권총을 꺼내 들고 양손으로 겨누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총을 쏘면 나는 금세 죽지 않는다. 나도 쏘아 같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일곱째 천사가 영어로 말을 하니, 자기네들도 살려나간 도로 총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헌병은 치안대장이 빨갱이라는 정보가 들어와서 잡으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한 쪽 손으로 팔의 ‘POLICE CHIEF’ 라고 쓴 완장을 가리키며, “나는 빨갱이가 아니고 빨갱이를 잡아서 포로로 형

무소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이 지역의 치안대장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높은 사람 캅틴에게 가자.”고 하니, 일곱째 천사는 지프차를 같이 타고 미 헌병대 본부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 헌병대장은 일곱째 천사를 보자마자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형무소에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무소는 일곱째 천사가 한 달 반 동안 고생했던 신양리 형무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일곱째 천사는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쓰면서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게 되니 당시 대동군 치안대원 30여 명은 몰살당했으며,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양숙이란 처녀도 그때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부산 가야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온 인민군들에게 듣고 동료들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신양리 형무소에는 앞서 일곱째 천사가 직접 포로로 잡아서 집어넣은 인민군 수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일곱째 천사가 들어가니 많은 포로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서 치안대장인 당신이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무는 군인도 아닌데 이곳에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왔으니 크게 잘못 되었시다.” 하며 동정어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저 그렇게 되었노라고 담담하게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에게 붙잡혀서 들어온 포로들은 반동분자 치안대장이라고 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못대를 가해 왔던 것입니다. 빨갱이들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서 일곱째 천사를 포로 뒤집어 씌워놓고 집단으로 구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일곱째 천사는 그 자신이 때 맞으며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백한수

정인원: 미륵불 출현을 알리는 전령 전설의 꽃 우담바라



‘목불지장보살상’에 유리섬유 같은 하얀 꽃이 피어서 반짝이고 있다. 미륵불이 경기도 소사(素砂)에서 출현했음을 알리고 있다



손으로 들어와 기도(祈禱)로 개척한 곳이라고 한다.

개원(開院)을 앞둔 때 김중규(前 창녕군수) 신도회장이 108개의 목불지장보살을 불사(佛事)하였는데, 불사(佛事) 받고, 부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 바닥에 모셨는데 불상(佛像)을 바닥에 모시기에 너무 송구스러워 그 중 10분을 법당 상단에 모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반딧불 같은 뭔가가 오륙십 마리 정도가 불상 주위를 맴돌더니 이후 10분의 목불지장보살 온 몸에 우담바라 가사장삼을 두르시면서 하얗게 목(木)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인원 원장님은 “부처님 108분을 불사받기 전날 밤, 세계 각국의 깃발을 든 부처님 108분이 정인원의 정문을 통해 법당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고도 한다.

참으로 신이한 일이다. 미륵불이 출현하면 도처에서 신이한 일이 벌어져 당신의 출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리준경 / 대구제단 책임승사



이내섭 장로(우측 첫번째)이 작시한 정인원 우담바라 찬불가 액자를 헌정하고 있다. 좌측 첫번째가 정인원 원장

정인원 우담바라 찬불가

작사 : 우담대사

- | | |
|---|---|
| 1. 석가예언 삼천칠년 미륵부처 오신다고
회엄경 칠삼권에 깊이 깊이 적혔었네
생미륵불 오시면은 우담화가 핀다는데
한도명에 미륵부처 우담화로 오셨도다 | 정인원 원장님 지극정성 미륵본신 나무
셨네 |
| 2. 창령연산 정가받은 창녕군 정인원이라
정인원 목불지장보살에 환꽃 우담화
삼존불의 금륜왕이 오셨다는 증거일세 | 3. 계두왕이 다스렸던 금수강산 창녕이라
북방불기 삼천칠년 생미륵불 나무셨네
미륵공전 세우시고 극락백성 카우시려
미륵불의 감로해인 모든중생 생불하네
2017년 丁酉 11월 30일 |

▶2면에서
는 말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담바라는 이 세상의 꽃이 아닌 천상(天上)의 꽃이라고 했던가!
이윽고 ‘정인원 원장님’ 도 불당(佛堂)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담바라 이내섭 장로님’ 이 희사(喜捨)한 액자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액자는 ‘우담바라’ 이내섭 장로님이 지은 ‘우담바라 찬불가’ 와 미륵(彌勒)부처님

을 예찬(禮讚)한 시(詩)와 ‘우담화’ 가 핀 불상(佛像)사진으로 꾸며진 것이다. ‘정인원 원장님’ 은 시(詩)를 읽어보고 불자(佛者)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불상(佛像) 옆에 두었다.
우리는 다시 손잡듯이 방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우담바라 이내섭 장로님’ 은 ‘조희성님이 미륵(彌勒)부처님’ 이라는 것을 증거(證據)하는 여러 경전(經典)의 자료들을 보여 주면서 전도하셨다. 이에 ‘정인원 원장님’

께서는 차분히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주님의 존재를 수경(首肯)해 주셨다. 우리 일행에게 열심히 수도(修道)하고 전도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정인원 원장님’ 은 어린 시절부터 고행(苦行)과 土窟(토굴) 좌상, 수도(修道)로 점철(點綴)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인원’ 원장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衆生)들에게 전파(傳播)하는 것이 소원(所願)이라고 하였다. 이곳도 ‘정인원 원장님’ 이 빈